

## 근대 사명당 담론과 밀양 지역문학

이순욱\* · 이상원\*\*

### 차 례

- |                          |                        |
|--------------------------|------------------------|
| I. 들머리                   | 2. 영화출판사본과 흥미 위주의 통속성  |
| II. 근대계몽기 위인전기와 사명당      |                        |
| III. 딱지본 대중소설 『사명당전』의 판본 | IV. 광복기 국어교육과 사명당 담론   |
| 1. 덕흥서림본과 서산대사의 추앙       | V. 밀양 지역문학과 사명당 담론의 확장 |
|                          | VI. 마무리                |

### 국문초록

근대문학에서 사명당 담론이 폭넓게 재생산되지 못한 까닭은 복합적이다. 근대 이후 역사위인전기의 전통에서 ‘서산대사전’의 부차적 서사로서 ‘사명당전’의 독자성 부족, 무인(武人)을 존송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이순신 담론의 주류화와 그에 따른 과소평가, 승려라는 신분적 지위와 허약한 법맥에 따른 역사적 주변화 등의 문제와 관련 있다. 근대계몽기 이후 오늘날까지 생산된 사명당 담론의 가장 큰 줄기는 서사담론으로서 딱지본 대중소설과 역사소설, 희곡의 세 갈래다. 물론 교과서 제도와 밀착된 어린이 위인전이나 만화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다. 이 글은 근대계

\* 제1저자, 부산대학교 강사

\*\* 교신저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몽기 역사위인담론의 지형과 사명당 전기의 위상, 1970년대 후반까지 재생산되었던 딱지본 대중소설 『사명당전』의 판본 비교, 광복기 사명당 위인전기의 교과서 수용 문제를 검토하여 사명당 담론의 역사적 맥락과 성격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밀양 지역문학에서 사명당 담론을 어떻게 생산하고 확장할 것인가를 제안하였다.

첫째, 근대계몽기 영웅 전기 「休靜大師傳 附惟政 靈圭」는 민족의 주체성을 고양하고 외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이었다. 둘째, 문헌기록을 충실히 따른 덕흥서림본(1926) 『西山大師와 四溟堂』은 조선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자각과 역사의식을 강조하고 있었다. 설화적 성격이 강한 영화출판사본(1954) 『壬辰倭亂 四溟堂傳』은 후처에 대한 복수를 중심적 서사로 삼아 통속적인 재미를 추구하고 있었다. 영화출판사본은 출판사와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변개되면서 대조사본(1958), 향민사본(1978)으로 재생산되었다. 넷째, 광복기 교과서 제도에서 사명당은 승병장이나 정치외교의 영웅으로서 수용되었으나 『壬辰錄』 계열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은 측면이 강했다. 다섯째, 밀양 지역문학에서 사명당 담론은 활발하게 생산되지 못했다. 사명당 유택이나 표충사, 표충비각 등의 장소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여 지역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명당, 사명당 담론, 서산대사, 역사위인전기, 영웅, 영웅담론, 딱지본 대중소설, 『사명당전』, 덕흥서림본, 영화출판사본, 세창서관본, 대조사본, 향민사본, 밀양, 밀양 지역문학

## I. 들머리

사명대사 입적 400주기를 맞아 기념사업이 한창이다. 진원지는 대사

가 태를 묻은 밀양 지역이다. 이 일이 사명당 기념사업회나 표충사, 밀양시의 ‘특별한’ 기념행사 정도로 그쳐서는 마땅한 대접이라 할 수 없다. 이미 몇 해 전에 사명대사 유적지를 조성하고 생가를 복원하여 현양 사업의 밑자리를 든든히 마련하였다. 이러한 터전 위에서 역사의 고행화와 화석화에 맞서는 창발적인 담론을 생산함으로써 사명대사의 구국정신과 불교사상을 현재화하는 일이 남은 과제다. 어느 한 단체의 의례적인 기념행사를 넘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밀양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불교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동안 사명당 연구는 그의 행적이나 사상적 맥락, 일본 사행에 집중되었다. 역사학계의 접근이 대부분이다. 국문학에서는 대체로 『임진록(壬辰錄)』 계열의 소설사적 조망과 설화 연구에 집중한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맥락에서 사명당이 과소평가된 까닭은 무엇일까? 사명당의 저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인용문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사적은 역사상에 그리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사명당이 원래 관도(官途)에 나섰던 사람도 아니오, 유생(儒生)을 배경(背景)으로 삼았던 사람도 아니오, 오직 당시 천히 여기던 일개(一介) 승도(僧徒)로서 구국제생(救國濟生)의 의(義)를 일으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정(朝廷)에서 그리 알아주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나 그 대신 향간(巷間)에 퍼진 속담야설(俗談野說)로는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모를 사람이 없을 만큼 알려져서 왕왕이 허무맹랑한 신화(神話)로 화해버리는 폐단까지 없잖아 있다.<sup>1)</sup>

김종열은 사명당이 유가 계열이거나 관도에 나섰던 정치인이 아니라 “일개(一介) 승도(僧徒)”였기 때문에 역사 기술의 주류에서 밀려났다고

1) 김종열, 「머리말」, 『巨僧 四溟堂』, 문창당, 1948, 1쪽. 이 책은 “소설이나 야담 비속이 섞으면서도 소설과 야담이 아니오 순전한 역사 자료 그대로를 추려서 국문으로 번역한 데 지나지 않는다.”(3쪽)는 저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의 형식을 빌렸으나 연대기적 역사서에 가깝다.

본다. 여기에서 “속담야설(俗談野說)”로는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신화(神話)”로 전락했다고 하더라도 구국의 영웅으로서 사명당 담론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존재로서 인간 사명당에 대한 과소평가가 여전한 가운데, 사명당 담론은 설화나 민담, 소설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왔던 것이다.

근대 들어 사명당 담론은 여러 갈래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큰 줄기는 서사담론이다. 이 자리는 딱지본 대중소설<sup>2)</sup>과 역사소설<sup>3)</sup>, 희곡<sup>4)</sup>, 야담<sup>5)</sup>의 갈래가 있다. 둘째, 위인담론이 생산되는 교육제도 안쪽의 자리다. 여기에서 사명당은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유관순과 같이 영웅으로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셋째, 아동문학의 영역이다. 아동문학가가 집필한 위인전기<sup>6)</sup> 계열이 지배적이다. 현재까지 사명당 담론이 가장 활발하게

- 
- 2) 가장 이른 작품은 역사학자 장도빈의 『西山大師와 四溟堂』(덕흥서림, 1926)이다. 이 계열에 드는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강근형, 『壬辰倭亂 四溟堂傳』, 영화출판사, 1954; 『서산대사 사명당전』, 대조사, 1958; 신태삼, 『四溟堂傳』, 세창서관, 1962; 『壬辰倭亂 四溟堂傳』, 향민사, 1978. 이 가운데 대조사본과 향민사본은 영화출판사본을 저본으로 삼아 현대 맞춤법에 따라 손질한 것으로 내용이 똑같다.
- 3) 설화성이 강했던 딱지본과 구별되는 본격 역사소설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이종익, 『四溟大師』 상·하, 정토문화사, 1957; 김태흠, 『四溟堂』 1~3회, 『녹원』, 녹원사, 1957; 최인욱 『四溟堂傳』, 을유문화사, 1962; 오 영, 『悲戀의 女人과 四溟堂』, 문교출판사, 1964.
- 4) 박노아, 『四溟堂』, 『戯曲叢書 朴路兒篇』, 정음사, 1950, 193-313쪽; 박중관 각본, 『四溟堂』, 동아영화공사, 1963.
- 5) 임정산 편저, 『西山大師와 四溟堂』, 『사명당(四溟堂)의 풍운기(風雲記)』, 대한출판사, 1962, 62-79쪽.
- 6) 어린이 위인전기는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영역이다. 대표적인 저작을 들면 다음과 같다. 권오석 글·이정은 그림, 『사명대사』, 춘추문화사, 1979; 김동리·김영일·백 철 엮음, 『사명당』, 한국출판공사, 1983; 이주훈 글·손창복 그림, 『사명당』, 동아출판사, 1987; 엄성기 글·윤만기 그림, 『사명대사』, 웅진, 1988; 유여춘 글·김덕보 그림, 『사명당』, 계몽사, 1989; 차원재 글·홍성찬 그림, 『이순신·사명대사』, 한국도서출판중앙회, 1989; 어효선, 『사명당』, 교학사, 1994.

재생산되고 향유되는 자리다. 어린이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재미를 앞세움으로써 허구성과 역사성의 경계가 가장 무딘 영역이기도 하다. 밀양이라는 특정 장소에 기대어 아랑서사가 끼어드는 형식도 보인다.<sup>7)</sup> 아동문학의 계몽성과 교훈성을 고려하면 사명당의 삶과 구국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필요하다. 넷째, 대중문화의 영역인 영화<sup>8)</sup>와 만화<sup>9)</sup>가 있다. 설화성과 역사성, 통속성, 계몽성을 복합적으로 내장한 자리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고와 경계가 뚜렷한 밀양 지역에서 사명당의 문학적 수용과 향유를 빼놓을 수 없다. 오늘날 가장 주목해야 할 영역이다. 바람직한 지역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문학사회에서 사명당 담론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다양하게 생산된 사명당 담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근대계몽기 위인전기의 전통에서 사명당 전기가 ‘서산대사전’과 결부되어 부차적으로 논의됨으로써 독자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근대계몽기나 한국전쟁기에도 을지문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국난을 극복하는 데 앞장 선 무인(武人)을 앞세우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사명당은 구국영웅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니는 데 부족했다. 이순신 담론에 견주어 사명당의 담론 생산이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셋째, 임진왜란을 다룬 대중문학의 자리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주류로 부각된 반면

7) 밀양부사는 영남루의 소년 백일장에서 장원을 한 응규를 아랑의 배필로 삼으려 응규의 스승인 유촌 선생을 찾아가 중매를 부탁한다. 그러나 유촌 선생이 자신의 딸 숙영과 약혼한 사이라며 거짓말을 하여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실망한 아랑이 응규를 사모하여 상사병으로 죽는다는 내용이다. 유여촌 글·김덕보 그림, 앞의 책, 33-41쪽.

8) 김진규, 조미령, 허장강이 출연한 『사명당』(안현철 감독, 1963)이 유일하다.

9) 이만수, 『승병대장 사명당』 1~3, 여명출판사, 1996. 각 권의 말미에 부록 「논리적 고전 읽기」를 두어 내용 파악을 위한 객관식 4지선다형 12문항과 서술형 3문항을 두어 수학능력시험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사명당은 주변부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사명당 담론은 그간의 연구사가 입증하는 바, 역사위인전기나 딱지본 대중소설, 역사소설의 영역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이 글은 근대문학사에서 사명당 담론의 위상과 성격을 살피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논의의 순서를 항목별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근대계몽기 위인전기의 지형과 사명당 전기의 위상<sup>11)</sup>, 딱지본 대중소설 ‘사명당전’의 역사적 맥락과 성격, 광복기 위인전기의 교과서 수용과 사명당 설화를 차례로 논의하고자 한다.<sup>12)</sup> 이를 통해 현재 밀양 지역문학에 나타난 사명당 수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학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인물담론을 지역문학의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고 확장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 
- 10) 근대 사명당 서사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딱지본 대중소설 『사명당전』이 김기선의 학위논문에서 한 차례 다루어진 바 있다. 「<사명당전>의 형성과정과 작자의식 연구」, 경성대 석사논문, 2009, 1-57쪽. 그러나 이 논문은 영화출판사 판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까닭에 1970년대 후반까지 변개되었던 『사명당전』의 유통 맥락, 판본의 차이와 판본 비교를 통한 편집자의 의도, 대중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 11)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근대문학사 서술에서 배제된 영역 가운데 하나가 근대한국문학이다. 특히 근대계몽기 의병문학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자료가 더 많다. 경술국치를 맞아 음독자살한 의병 김재한이 사명당의 영정을 모신 공주의 감사 표충원에서 지은 시가 있다. “사명당의 의로운 서고 티끌을 쓸어버렸으니/승장의 높은 충성 위태로울 때 의탁했네/ 지금까지 붉은 벽에 초상화로 남았으니/산속의 작은 누각이 바로 기린각일세.” 重峰義嫗掃塵 僧將危忠托絕命 丹壁至今遺像在 山中一閣即麒麟. 원문은 김영철, 「개화기 한시의 현실 인식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5호, 한국시학회, 2001, 57쪽에서 재인용. 나라 잃은시대 가파르게 진행되어 온 자료의 유실을 생각해 본다면, 근대 의병문학에서 사명당의 수용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 12) 1950년대 이후 생산된 본격 역사소설은 고(稿)를 달리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II. 근대계몽기 위인전기와 사명당

근대계몽기에는 민족 교양과 계몽의 측면에서 역사전기담론이 양산되었다. 영웅 전기가 각별히 강조된 까닭은 민족의 주체성을 고양하고 외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이었다. 신채호의 『을지문덕(乙支文德)』과 『수군제일위인(水軍第一偉人) 이순신(李舜臣)』, 『동국거걸(東國巨傑) 최도통(崔都統)』, 박은식의 『천개소문(泉蓋蘇文傳)』, 장지연의 『애국부인전(愛國婦人傳)』이 대표적이다. 이외에서도 『이태리건국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 『라란부인전(羅蘭夫人傳)』과 같은 번역전기가 널리 소개되기도 했다.<sup>13)</sup>

그렇다면 근대계몽기에 전대 전(傳)양식의 변용을 보여주는 이러한 역사전기문학이 양산되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다음 인용문은 당대 사회에서 위인 또는 영웅의 호출과 그것의 지향점을 오롯이 담고 있다.

▲직할 유지스는 나라를 근심하고 사랑하느자—오 영웅은 시무와 시세들 아는자—라 나라를 근심하느 마음은 사름마다 아는거시니 유지스 되기는 주귀하러니와 영웅은 특히 혼사름이라 감히 주쳐하지 못하느니 영웅이 지금에도 잇느뇨 ▲쥬인왈 이거슨오희힘이 심하도다 영웅은 별물건이아니라 말도 잘하고 글도 잘하고 락루도 잘하야 능히 사름을 감동케하며 사름을 놀너며 사름을 격동하느자도 영웅이니 연설노 사름을 감동케 하느자도 지금잇고 문장으로 사름을 놀너는자도 잇고 락루하야 사름을 격동하느자도 내가 보앗스니 우리 한국에 다수흔 영웅이 업다하리오 나는 유지자가 다 영웅이라하노니 이러흔 연설가와 문장가와 락루직을 보지못하엿스며 알지 못하느뇨 영웅을 아는자는 영웅을 아는 영웅이오 영웅을 베히는자는 영웅을 베히는 영웅이오 영웅을 밋는자도 영웅이오 사랑하느자도 영웅이오 공경하느자도 영웅이오 스모하느자도 영웅

13) 대체로 영웅사관에 초점을 맞춘 기술물이다. 영웅사관은 역사를 승자의 기록으로 올려 세움으로써 일반 민중들의 삶을 배제한다. 나치즘에 대한 경도나 박정희에 대한 향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것은 곧잘 대중독재의 전략적 거점이 된다는 점에서 다분히 문제적이다.

이니 유지자—라흐는사람이 엇지 영웅으로 즈쳐흐지 아니흐리오 시무와 시세를 은거든 어렵다흐겟스나 여러 영웅이 합흐면 하늘뜻도 이기고 하늘 고티도 썩앗을지라 시무와 시세의 알지못함을 엇지 근심흐리오<sup>14)</sup>

인용문은 지금 영웅이 있느냐는 객의 물음에 주인이 대답하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답은 “영웅을 아는 자, 벗하는 자, 믿는 자, 사랑하는 자, 공경하는 자 사모하는 자” 모두 영웅이라는 것이다. 일종의 영웅의 신격화 또는 반신적(半神的)·전사적(戰士的) 이미지를 무화시키는 내용이다. 다르게 말하면 근대계몽기에는 이 시대에 걸맞은 영웅이 존재한다는 논리이다. 영웅을 알고 벗할 줄 아는, 그리하여 자발적인 사모와 공경을 바탕으로 수많은 “여러 영웅”들이 합하면, “하늘 뜻”을 이기고 “기틀”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본다. 즉,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능동적인 공감에 더 많은 영웅을 배태하고 또 스스로가 영웅이 되어 그 영웅들의 힘을 결집시키자는 것이다. 이로써 영웅이 요구되는 근대계몽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교훈적인 의미가 강하다.

과거의 역사적 영웅에 대한 강조는 당대 혹은 미래에 “여러 영웅”의 탄생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근대계몽기 입진왜란에 비견되는 국난 속에서 을지문덕이나 연개소문, 강감찬, 최 영, 이순신 장군을 호출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함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당시 새로이 요청되는 영웅은 그런 소수의 큰 영웅만큼이나 국민 개개인이 다수의 작은 영웅들이 되어 달라는 형태로 제시된다. 이때 영웅의 호출은 국민의 행동을 촉구하는 호명의 형식<sup>15)</sup>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대계몽기는 역사 위인의 사적을 기록한 서사 양식의 생산과 향유가 두드러졌던 시기이다. 신채호나 박은식의 경우처럼 장형의 서사

14) 「시스평론—서호문답 (속)」, 『大韓每日申報』 1908.3.18, 2면.

15) 이진경, 「근대 계몽기 『대한매일신보』에서 근대적 역사 개념의 탄생」, 『사회와 역사』 제74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135쪽.

양식도 있지만, 인물의 사적을 집중적으로 서술한 단형의 서사 양식이 있다. 이 시기에 사명당의 일대기를 기록한 서사 양식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休靜大師傳’을 기술하는 과정의 부산물로 기술되어 있는 ‘惟政靈圭’가 있을 뿐이다. 「人物考」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것처럼, 아래 소개하는 사명당전은 간략한 인물기사에 가깝다.

休靜大師의 字는 玄應이오 自號 淸虛子오 又 號 西山大師오 俗姓은 完山 崔氏오 名은 汝信이라. 外祖縣 尹金禹가 燕山朝에 得罪호야 安陵에 謫居함으로 遂爲安州人호다 父는 世昌이니 鄉舉로 爲箕殿參奉호되 不就호고 詩酒로 自悞호니라. (...중략...)

惟政의 字는 松雲이니 西山高足이라. 丁酉에 日人이 再侵이라가 庚子에 兵罷호되 和議를 請호거를 朝廷이 惟政으로 使節을 持호야 日本에 往호니 盖日人이 佛敎를 尊尙호고 且 惟政의 聲名을 素慕호 故라. 惟政이 伏劔渡海에 意氣軒昂호니 彼가 莫不敬歎이러라. 及到江戶에 關白이 與語大悅호야 言言敬服이라. 關白이 從容問호되 聞貴國에 多珍異라 호니 何物이 爲最寶耶야. 惟政曰 我國은 無寶오 以倭人之頭로 爲上寶라호되 關白이 大笑호고 款接이 甚厚러라. 竣事而還호되 上이 嘉호호사 特賜禪號曰 四溟大師라 호시다. 惟政之徒에 有靈圭호니 壬辰에 僧軍을 率호고 淸州에 舉義호야 與趙文烈憲으로 犄角賊勢러니 及錦山之戰에 文烈이 敗死호니 露圭ㅣ力戰死호호다.

正祖 甲寅에 西之香山과 南之晋州에 建祠호야 休靜과 惟政을 祀케 호시고 賜額호시되 西曰 酬忠 南曰 表忠이라 호다.<sup>16)</sup>

사명당의 행적을 기술한 인용문을 볼 때, 사명당이 서사대사와 동일한 위상을 지닌 실체적 인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서술체재와 방식을 보면, 입전인물인 사명당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특징적이다. 밑줄 친 부분처럼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와의 담판에서 보여준 사명당의 표창할 만한 일화를 간략하게 제시해 놓았을 뿐, 역사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입전 인물을 총체적으로 조명하지 못했다. 서산대사

16) 「休靜大師傳 附惟政 靈圭」, 『西北學會月報』 제1호, 1908.6, 33-35쪽.

의 고족(高足)제자라는 첫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행적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개입된 부수적 인물로 취급되고 있는 셈이다. 영웅의 행적과 공덕을 올려 세운 논찬이나 사후 평가가 빠져 있는 서술 방식을 보아도 사명당의 위상이 과소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물기사 형식은 뒷날의 딱지본 대중소설 『四溟堂傳』으로 발전하면서 장형화되고 내용도 풍부해진다.

경술국치 이후에는 역사전기담론의 운명이 그러했듯이, 사명당에 대한 역사위인전은 좀체 발견하기 어렵다. 드물게 『불교진흥회회보』에서 사명당의 유목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sup>17)</sup>

나의 근본 소원은 다만 우리나라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와 「생령을 두루 구제하라」는 선사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그 원을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매우 서운하였소.

나는 서쪽으로 돌아온 뒤로 몸이 몹시 병들고 쇠약하여 이내 묘향산에 들어가 스스로 분수를 지키면서 죽기를 기다렸더니, 마침 사신의 가는 편이 있다 하기에 곧 한훤(寒暄) 두 자로써 노형의 고요한 속의 봄 꿈을 깨우게 된 것이오, 부디 형은 본래의 뜻을 어기지 말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원으로써 대장군(大將軍)에게 아뢰어, 우리 백성들을 모두 돌려보냄으로써 전날의 맹세에 어김이 없게 하면 못내 다행한 일이겠소. 이 변변찮은 물건이나마 웃고 받아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그치오.<sup>18)</sup>

인용문은 생령, 즉 백성들을 두루 구제하지 못한 서운함을 편지글로 칭하는 소극적인 형식이다. 그것은 사명당의 의기와 대담무쌍함과는 일정한 거리를 갖는다. 설화나 야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격화되거나 도술을 부려 조선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승병장 또는 전사의 이미지와

17) 逸素居士 選, 「贈日本僧圓光元估書」, 「(德川)家康長子 有意禪學 求語再勤 仍示之」, 「次元估韻」, 『佛教振興會月報』 제1권 제6호, 불교진흥회, 1916, 41-42쪽.

18) 인용문의 번역은 다음 판본을 따랐다. 김달진 외 옮김, 『四溟大師集』, 동국역경원, 1970, 252쪽.

도 편차가 있다. 오히려 불가의 구도자 이미지를 강하게 환기시킨다. 그런데도 나라잃은시대에 드물게 덕흥서림본과 같은 실기에 바탕을 둔 역사위인전이 창작되기도 했다.

### Ⅲ. 딱지본 대중소설 『사명당전』의 판본

딱지본 대중소설 가운데는 사명당의 행적을 서술한 다양한 판본이 존재한다. 가장 앞서는 판본은 역사학자 장도빈의 저작으로서 덕흥서림본 『西山大師와 四溟堂』(1926 초판)이다. 문헌기록에 충실한 판본으로 역사소설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뒤를 있는 판본이 영화출판사본 『壬辰倭亂 四溟堂傳』(1954)이다. 이 판본의 표기방식을 현대어로 바꾸어 재출간한 것이 대조사본 『서산대사 사명당전』(1958)과 향민사본 『壬辰倭亂 四溟堂傳』(1978)이다. 독자의 흥미와 재미를 고려하여 구비문학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영화출판사본 계열의 판본은 덕흥서림본과는 역사 해석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덕흥서림본(1928, 3판)과 영화출판사본(1954, 초판)을 주된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겠다.<sup>19)</sup>

#### 1. 덕흥서림본과 서산대사의 추앙

덕흥서림본의 줄거리는 크게 다섯 매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서산대사의 입산, ②서산대사의 출전, ③서산대사와 사명당, ④서산대사와 김응서, ⑤서산대사의 말년이 바로 그것이다. 전반적으로 서산대사의 삶과 활동에 무게를 두었다. ①에서 대사의 가계와 행적을 4쪽에 걸쳐 비교적

19) ‘서산대사전’의 부록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는 영화출판사 계열의 판본과는 달리, 사명당의 출가와 행적을 중점적으로 다룬 세창서관본 『四溟堂傳』(1962)이 존재한다. 그런데 글쓴이가 확보한 책자가 파본이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후 자료를 수습하여 논의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소상하게 밝혔다. ②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일으킨 서산대사가 김응서, 이여송과 평양성을 회복하고 묘향산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③은 선조의 명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담판하여 왜군을 철군시키고, 조선인 포로 삼천 명을 귀환시킨 사명당의 외교적 성공을 다루고 있다. ④에서는 선조에서 광해군에 이르는 시기 김응서의 활약상과 “만주 님금 놀아치”의 항복 권유에도 끝까지 저항하다 죽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서술하고 있다. ⑤에서는 서산대사 사후 불교계의 동향과 제자들의 행적, 유묵에 대한 소개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서산대사전의 후편 정도로 여겨지는 덕흥서림본 사명당전의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덕흥서림본은 서산대사에 비해 사명당의 가계나 입산하기까지의 내력에 대한 기술이 지나치게 소략할 뿐만 아니라 사명당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아래 인용문 (1), (2)에서 알 수 있는 바, 작품 서두의 인물 정보 제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출생지 또한 진주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

(1) 서산대사는 일흠이 휴정(休靜)이오 호는청허당(淸虛堂)이오 성은최오 본명은여신(汝信)이오 자는현응(玄應)이니 서기일천오백이십년 경진 곳조선중종대왕(中宗)십오년삼월에 평안도안주군에서 나니라 (...중략...) 이후로 대사금강산에서 숨어잇서 더욱불경을 연구하고 불도를다그니 사방에서 대사를차자와 공부하는자 | 만터라 (1~4쪽)

(2) 유정(惟政)의 자는송운(松雲)이니 곳 사명당이라 유정이 본래 결상도진주사람이니 소년에중이되야 금강산에 드러오매 맞참 서산대사 금강산에 잇슴으로 유정이 서산대사를 뵈오니 (...하략...) (18쪽)

둘째, 사명당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와의 외교적 협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관백과의 외교적 협상이 대등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백이

사명당의 충고와 권유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명당이 구국의 영웅이었다는 점을 과도하게 강조한 결과로, 이러한 일화의 배열을 통해 독자들의 몰입과 대리만족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략…) 나는 생각건대 조선이나 명나라군사가 오기전에 먼저일본 군사가 장군을쫓차낼날이 멀지아니한줄 아나이다 수길이기말을듯더니 얼골빛치변하며 걸상에서내려서 싸에쓸어안즈며 같오되 선생이시여 나는오늘선생의말삼을듯고 비로소내형편을알엇사오니 그러면 엇더케하얏스면 조음닛가 유정이같오되 (…하략…) (24쪽)

셋째, 김응서와 조선에 귀화하려는 일본장수 사야가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배반하고 귀화하려는 의도를 거듭 묻는 김응서의 질문에 대한 사야가의 답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귀화한 사야가는 훗날 김충선으로 개명한다. 덕흥서림본이 역사 기록을 충실히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내가 조선에 귀화하라함은 다른리유아니라 지금일본이 강성하다하나 그는오직군사가 강하고 군기가정밀하여 전쟁을 잘하는것뿐이옵고 실상 일본은 아즉 문화당도 유치하와 몽매한일이만사온지라 (…중략…) 내가 이번대전쟁에와서 각처로다니며보니 조선은과연 문명한나라이올시다 그전쟁이 매우크고 위태한중에도 조선사람은 그도덕을 직힘과 레의를승상함과 남nergadanara에 충성함과 모든문화가발전한것을보면 과연조선은 문명한나라이올시다 (28~29쪽)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덕흥서림본은 전반적으로 서산대사의 일대기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명당과 김응서의 이야기는 각편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서산대사의 삶을 부각시

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탁월한 외교가로서의 사명당과 혁혁한 공을 세운 김응서를 추천한 이는 서산대사이다. 무엇보다도 서산대사가 이들을 천거하고, 선조가 이를 중용했다는 점에서 서산대사의 혜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결국 서산대사가 없었다면 왜란을 극복할 수 없었으므로, 서산대사의 예지력과 비범함은 한층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김응서의 죽음은 왜란이 평정되고 난 후 낙향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라는 서산대사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까닭에서 연유하므로 대사의 예지력은 한층 강화된다.

또한 덕흥서림본은 역사가의 저술답게 『임진록』에서 흔히 표출되었던 구비문학적 요소를 적극 배제함으로써 비교적 문헌기록에 바탕을 두고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야담이나 설화에서 자주 보이듯이 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당, 김응서라는 탁월한 인물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역사 기록과의 일치 문제는 차치하고 서라도 역사적 실존 인물들을 다룸으로써 사실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딱지본 대중소설 일반이 갖는 성격과는 달리, 일제의 검열이 강화되었던 1920년대 중반의 상황에서 조선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자각과 역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 2. 영화출판사본과 흥미 위주의 통속성

영화출판사본은 전체 줄거리를 일별할 때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전개에서 설화적 속성이 사뭇 두드러진다. 덕흥서림본과의 비교를 위해 영화출판사본의 서사단락을 개관하고, 판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 선조 때 당쟁과 봉당이 극심하여 임승지가 극심하여 벼슬을 버리고 밀양으로 낙향하다.
2. 임승지의 아들 유정이 남달리 총명하여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다.
3. 유정이 향시에서 장원급제한 후, 입신양명할 뜻을 밝히다.
4. 유정이 17세에 정혼한 이 참판의 딸과 혼인하다.

5. 유정이 소과 복시에 합격하나, 장원급제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과거 준비에 열중하다.
6. 이씨 부인이 아들을 낳다.
7. 부모가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를 살다.
8. 이씨 부인이 갑자기 죽자, 친구들의 권유로 김씨 부인과 재혼하다.
9. 김씨 부인이 아들을 낳은 뒤, 큰아들을 구박하기 시작하다.
10. 큰아들이 한씨댁 규수와 결혼한 첫날밤에 머리가 잘린 채로 죽다.
11. 임진사(유정)는 죽은 아들을 장사지내고 두문불출하다.
12. 한씨 부인은 누명을 벗기 위해 집을 떠나 방물장사가 되어 탐문하던 중, 진주에서 이춘삼 노인 내외의 수양딸이 되다.
13. 한씨 부인이 이춘삼 노인의 잠꼬대를 듣고는 노인을 겁박하여 범행일체를 자백받다.
14. 밀양으로 돌아와 임진사를 만나 사건의 전말을 말한 뒤, 누명을 벗고 자결하다.
15. 임진사가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뒤, 김씨 부인과 그의 소생, 큰아들의 머리와 며느리의 시신을 방안에 넣고는 불태우다.
16. 임진사가 금강산 표훈사 들어가 서산대사의 제자가 되다.
17. 일본이 조선을 침범하자, 의주로 몽진을 떠난 선조가 정곤수(鄭峴壽)를 사신으로 보내 명의 원병을 요청하다.
18. 정곤수의 간곡한 요청과 병부상서 석성 부인의 도움으로 이여송(李如松)이 군대를 이끌고 의주에 도착하다.
19. 서산대사가 이여송과 함께 평양성을 공격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다.
20. 유정이 선조의 명을 받아 강화사로 일본에 가다.
21. 유정이 풍신수길의 요구를 거절하여 갓은 고초를 겪다.
22. 풍신수길이 급사하자 일본군이 철수하고, 임유정이 포로를 데리고 귀환하다.

첫째, 전반적으로 후처의 전처 아들 살해와 그에 대한 복수가 중심적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 덕흥서림본에서 핵심 서사로 등장했던 외교적 활동상은 2쪽 분량으로 압축적으로 제시된다. 이는 근대계몽기 역사전기 담론이 민족교양과 애국계몽을 위한 공공적 요구에서 촉발되어 실천의

논리를 강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것은 전통적인 고소설 독자층을 상정하면서 대중적인 취향을 반영하여 상업주의적 논리를 추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덕흥서림본이 역사적 인물을 사실에 바탕을 두고 소설화했다면, 영화출판사본은 역사적 배경 속에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버무려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명당의 출가는 역사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허구에 바탕을 두고 기술되었다. 특히 불가에 귀의하는 동기가 중심적 서사에서 촉발되었다면, 전처나 그 소생들을 불로 태우는 것은 속세와의 과감한 절연에 세속적 인정이 남아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독자의 흥미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유교적 보편주의를 부정함으로써 탈속성을 강화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극적 출가 모티프를 통해 사명당은 국난을 마무리하는 강화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영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사명당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살해 위협을 신이한 능력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인(神人)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대사는 무어스로 강화코자왔느냐 대사가항복하면 조선을전멸한후가 이부귀를 누리게할거시오 그러치아니하면 죽이리라 유정왈 우리조선도 충효로본을 삼나니 비록수화에 든들엇지 군명을 찍고와서 항복하야 신자의 도리를 일으키릿가 수길왈그러면죽어도 항복치아니한단말인가 유정왈 비록목전에부월이 당도한들 엇지이심을두라하고 엄연이거절하매 수길은 말로항복받지못할줄알고 죄우를 호령하야 유정을 눈이싸인산중 에다가 삼일을 더운물한도금아니쥬고 굶기여두었다 이쥬는 용동성한이라서북풍온치동치듯불고 눈은함박갓치쏘다져 사람에게길리님도록 오되임 유정안진자리의는 눈한덤업시양춘가절과갓치 온화한대 임유정은단정이 안져 눈을감고 염불만할뿐이다 수길은삼일만의사람을보내여 탐지한즉 유정은 태연히안져 념불만한다하거늘 수길리밋지암코 친히와서본즉 과약기언이라 속으로경탄왈 임유정은 과연불가의 도통한사람이로다하고 수길이더욱경복하야왈 과연신인이라하고 유정을진심으로 경모하나 자

기요구의 응치아이함을분하야 옥에가두고 가진고초를 격계하드니 요션  
에행인지일본에불행인지 수길은시름시름알타가 목덕을달치못허고 이세  
생에 썩난사람이 되었다. (51쪽)

인용문에서 보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명당을 위협하는 장면은 『임진록』뿐만 아니라 설화에서도 곧잘 발견할 수 있는 화소이기도 하다. 사명당의 활약상을 담은 이러한 설화들은 사명당의 신이한 능력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통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영화출판사본에서는 전대 설화를 차용한 이야기가 자주 발견되는데, 석성부인의 일화는 대표적인 사례다. 병부상서 석성의 부인은 정근수가 20여년 전 동지사 서장관으로 북경에 갔을 때 그의 도움으로 청루(靑樓)행을 면한 처녀이다.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때의 역관 홍순언이 사절단 대표인 황정욱을 따라 상통사(上通事)로 갔을 때, 우연히 도와 준 여자가 훗날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의 아내가 되고, 결국 그녀의 도움으로 청병을 성사시켰다는 야담집의 일화<sup>20)</sup>와 유사하다. 결국 영화출판사본은 독자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이러한 일화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영화출판사본은 후대의 대조사본과 향민사본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으며, 또 다른 형태의 이본을 형성하는 원천 텍스트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조사본과 향민사본은 영화출판사본이 노정했던 국문체 중심의 엮표기법을 현대적 형식과 감각에 맞게 개편하여 독자층의 저변을 확보했다.

20) 정명기, 『한국야담문학연구』, 보고서, 1996, 74-96쪽.

#### IV. 광복기 국어교육과 사명당 담론

교과서 제도에서 강조하는 위인은 대부분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을 말한다. 광복기의 교과서에서 위인은 주로 남성 중심의 무장이거나 광복투사가 대부분이다. 이는 가까운 시기 식민지 지배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인이나 종교인이 위인의 반열에 들어갈 여지는 상당히 좁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사명당이 위인담론에 포섭된 까닭은 “천체의 해석자”<sup>21)</sup>라기 보다는 승병장 혹은 일본을 통렬하게 굴복시킨 정치외교의 영웅이라는 점에 있다. 문제는 다른 영웅담론과는 달리 사명당 담론에서는 임진록 계열의 설화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또한 교수요목기에서 1차교육과정까지 국어교과서 제도에 기술된 사명당 관련 기술 내용은 단 한 차례에 그치고 있어 위인담론의 생산에서도 일찍부터 서열화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략…) 왜왕이 듣고, 대경하여 왈,

“분명한 생불을 죽이지 못하고, 쓸데없이 재물만 허비하였도다. 달래어 화친하는 이만 같지 못하다.”

하고, 한 피를 생각하여, 무쇠 말을 달구어 놓고, 사신을 청하여 왈,

“그대가 부처라 하니, 저 쇠 말을 타고 다녀라.”

하니 사명당이 그 간계(奸計)를 알고 밖에 나와, 조선을 바라보고, 팔만 대장경을 외니, 사방으로 난데없는 구름이 모여 들어, 뇌성(雷聲)이 진동(振動)하며, 소나기가 그치지 아니하고 오니, 성중에 물이 괴어 여강여해(如江如海)하여, 인민이 무수히 죽는지라, 사명당이 호령 왈,

“간사한 왜왕은 종시(終始)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나를 죽이려 하거니와, 내 어찌 간계에 빠지리요? 이제 왜국을 함몰(陷沒)하리니, 만일 잔명(殘命)을 보전하려거든, 급히 항서(降書)를 올리면 비를 그치게

21) 토마스 칼라일은 영웅을 우주의 신성한 신비를 깨닫고 인간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주는 천체의 해석자로 본다. 토마스 칼라일·박상익 옮김, 『영웅승배론』, 을유문화사, 1982, 144쪽.

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일본을 동해를 만드리라.”

하고, 삼룡(三龍)을 불러 비를 주며,

“왜왕을 놀라게 하라.”

하니, 삼룡이 일시에 굽이치며 소리를 지르니 천지가 무너지는 듯하거늘, 왜왕이 대경 망급(忙急)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 궁중(宮中)이 다 바다가 되어, 물결이 태산 같이 점점 뜰에 들어오니, 왜왕이 하릴없이 인끈을 목에 매고, 용포(龍袍)를 벗어 땅에 깔고, 두 무릎을 공손이 꿇고, 두 손길을 마주 잡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을 우러러 조선 사신 사명당 전에 비나이다. 제발 적선(積善) 살려 주옵소서. 소왕(小王)의 나라 만민(萬民)이 다 함몰하게 되니 살려 주소서, 부처님 전에 비나이다. 소왕이 무도하와 부처님인 줄 모르고, 무수히 희롱(戲弄)하였사오니, 죄는 죽어도 마땅하거니와, 제발 적선 살려 주옵소서.”

하며, 부자지향서(父子之降書)를 올리거늘, 사명당이 받지 아니하고 왈,

“너의 잔명을 보전하려거든 해마다 인피(人皮) 삼백 장씩 바치되, 십오세 십륙세 된 계집애 가죽으로 바치고, 또 불알 서 말씩 바치되, 십오세 십륙세 된 아이로 하라.”

하니 왜왕이 왈,

“부처님께 목숨을 바칠지라도 인피와 불알은 바칠 수 없나이다.”

하니, 사명당이 왈,

“해마다 인피(人皮) 삼백 장과 불알 서 말씩을 바치고, 노자지국(奴子之國)의 향서를 써 올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벌을 더 주어 함몰하리라.”

하고, 삼룡을 호령하니, 비가 막 퍼붓 듯하는지라, 왜왕이 하릴없이 급히 향서를 써 올리더라.<sup>22)</sup>

인용문은 사명당이 “무쇠 말”을 타고 다니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꾀에 소나기를 내려 왜국을 함몰시키는 이야기이다. 사명당을 신인(神人) 혹은 “생불”로 신화화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통렬하게 제압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대한 심리적 보상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과서에 수록된 사명당 담론은 구전설화의 내용이

22) 이극노·정인승 엮음, 「사명당(四溟堂)」, 『중등국어』 2, 정음사, 1948, 70-72쪽.

대부분이다. 삼백 육십 간 병풍에 일만 일천 귀 글을 암송한 이야기, 구리방석을 타는 이야기, 채단(彩緞) 방석을 버리고 백목(白木)을 취하는 이야기, 불을 지핀 “구리 집”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인피 300장과 여아의 가죽, 불알 서 말 이야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구전이란 문헌사료의 바깥영역이다. 그런데도 진실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전이 갖는 장점은 현장성에 있다. 이 현장성이란 경험의 공유나 친밀성의 확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광복기 이후 생산된 사명당 관련 구술 자료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면, 교과서 학습효과가 어떻게 대중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나갔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sup>23)</sup>

## V. 밀양 지역문학과 사명당 담론의 확장

사명당의 사향시편을 보면 고향 밀양땅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다.<sup>24)</sup>

- 
- 23) 같은 맥락에서 김승찬은 현전 구비서사물이 어떤 창의적인 작자가 전래 문헌설화의 일부를 바탕으로 하여 창작한 『사명당전』과 『서산대사와 사명당전』, 이중익의 『사명대사』를 읽은 독자가 구술자가 되거나, 독자의 구술을 들은 청중이 다시 구술자가 되어 청중을 대상으로 자기 기억력에 의존하여 흥미로운 화소들을 재구성하여 구술한 결과라 보았다. 김승찬, 「사명당 구비서사물의 연구」, 『인문논총』 제56집,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00.12, 24-25쪽.
- 24) “열다섯에 집을 떠나 서른 살에 돌아오니/시냇물은 변함없이 서쪽에서 흘러오네./감 다리 동쪽 기슭 천 그루 버드나무/반 나마는 내가 떠난 그 다음에 시였으리.” 광재우 외 여럿, 오희복 옮김, 「고향으로 돌아와」, 『임진년에 난리를 당하매』(겨레고전문학선집 9), 보리, 2005, 556쪽. 이 번역의 원텍스트는 북한에서 펴낸 의명장 작품집 『조선고전문학선집』이다. 보리출판사에서 남북의 표기법 차이를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손질하였다. 동국역경원(1970)에서 낸 『사명대사집』 소재 다음의 번역시에 비해 한문투를 배제함으로써 말맛과 가락을 살렸기에 이 판본에서 옮겨왔다. “십오(十五)에 집을 떠나 삼십에 돌아오니/긴 내는 의구하게 물이 서에서 오네/시교(柿橋) 동녘 언덕 일천 가지 버들은/절반이나 산승(山僧)이 간 뒤에 심은 것이로다.” 十五離家三十回 長川依舊水西來 柿橋東岸千條柳 江半山僧去後栽 一歸鄉.

일반적으로 고향은 시간적·공간적·인식적 일체감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히 전란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고향은 단순히 나고 자란 곳이라는 의미를 넘어 조국이나 국가의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사명당의 구국활동상은 밀양 지역에서 곤잘 삶(苦難)의 지표로 추앙되거나 창작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나라잃은시대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이 동화학교가 강제로 폐교되고 서울 중앙학교 2학년(玄覺)에 편입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표충사다. 절의 살림을 맡았던 현각(玄覺) 스님과의 인연 때문이다. 소년 김원봉이 동화학교를 살리기 위해 기금을 모금했을 때 힘을 실어 주었던 이가 현각 스님이다. 이 인연으로 약산이 두 해 동안 머물며 항왜(抗倭) 의지를 북돋은 곳이 표충사다. 비록 평전에 기술된 이야기이지만, 약산의 의열정신의 중심에는 사명당이 있다. “사명대사님은 밀양 출신, 너는 그분이 태어난 땅에서 태어났느니라.”<sup>25)</sup> 현각이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의 담판에서 이긴 일화를 들려주며 당부한 말이다. 그런 다음 약산을 유물관으로 데려가 대사의 장검을 손에 쥐어주며 휘두르게 했다. 장검의 차가운 물질성과 그것이 의미하는 역사성은 열네 살 소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섰을 것이다. 학문적으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지만, 나라잃은시대 의열단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밀양 출신이라는 점은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의식을 형성하는 데 지역의 문화적 전통이 중층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선 승병장 사명당이야말로 밀양인들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동지의식(comradeship)을 공유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 들어 사명당 담론은 주로 인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일정한 장소성을 회복하면서 표충사 또는 표충비각으로 구체화된다.

①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어른들은 아무도/말해 주지 않았다./밀

25) 이원규, 『약산 김원봉』, 실천문화사, 2007, 66쪽.

양강에 대해서는//삼복 더위에도 얼음이 언다는/얼음골/나라에 큰일이 생겼을 때/땀을 흘린다는/사명당 비석/나라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나 타난다는 태극나비/동해에서 만 마리의 고기가 날아와/절을 이루었다는 만어사의/자라는 바위,/이 풀 길 없는 여러 가지 밀양의 이야기는/들려 주었어도//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다/말 없이 흐르는/밀양강에 대해서는.  
—오규원, 「밀양강—고향 이야기」 가운데서<sup>26)</sup>

② 산 첩첩 깊숙한 곳을 찾아 헤맨 신라왕자/약초 실린 피 뿌리라 달 디 단 물마시고/고질병 씻은 듯 나아 ‘신령한 샘靈井’ 절이름//인도나라 황면선사(黃面禪師) 도량을 여시었고/보우(普佑) 일연(一然) 큰 스님이 석장 짚고 일어난 곳/지나온 세월의 이끼 솔바람이 쓰다듬네//서산(西山) 송운(松雲) 일으킨 함성 중생 구한 보살계라/나라에서 내린 사당, 기림(祇林) 안에 받들었네./표충(表忠)의 거룩한 이름 종소리여 울려라  
—이운성, 「표충사(表忠寺)」 전문<sup>27)</sup>

③ 삼비문을 들어서서 섬돌 아래 합장할 제/우람한 돌의 자태, 홍제 존자(弘濟尊者) 화신이라/정역에 서성이는 얼이 보리심 일깨운다//한날 빗들은 아니어라 피가 도는 냇이리니/글자마다 얼룩이 져, 나라 위한 일 편단심/구슬땀 줄줄이 흘리며 겨레 근심 거두시네.  
—이운성, 「표충비각(表忠碑閣)」 전문<sup>28)</sup>

인용시는 역사경관과 자연경관의 발견을 통해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출한 경우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전쟁기 신학상이 주재하고 밀양 고적보존회에서 발간한 『郷土文化』<sup>29)</sup>에서 고스란히 재생산되고, 최근까지도 밀양을 기반으로 한 매체 활동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주류적 경향이다. 표충사를 비롯하여 영남루, 만어사, 밀양강, 얼음골 등 이름이 드높은 밀양의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을 노래한 문학작품이나 다

26) 오규원, 「이 땅에 씌어지는 抒情詩」, 문학과지성사, 1981, 107-108쪽.

27) 『밀양문학』 제22집, 밀양문학회, 2009, 19쪽.

28) 『밀양문학』 제22집, 밀양문학회, 2009, 19-20쪽.

29) 「第一禪刹 表忠寺」와 「救國聖師 四溟堂」이 대표적이다. 『郷土文化』 제1호, 밀양 고적보존회, 1953, 34-54쪽.

양하게 변주되고 있는 사명당과 아랑 서사는 밀양 지역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이다. 이처럼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의미화함으로써 바람직한 지역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 실존적인 생활공간인 장소 탐구가 기본 전제다. 지역민의 삶의 기반인 장소는 오랫동안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형성되고 의미화된다. 이러한 밀양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영남루와 표충사이다. 밀양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영남루 또는 표충사는 밀양 지역민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지역작가들은 지역문학의 주요한 제재로 삼아 ‘높은 심상성’을 지닌 장소로 올려 세움으로써 밀양의 지역이미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sup>30)</sup>

이즈음 지역사회 곳곳에서 역사인물 현양사업이나 문화유적지의 복원과 정비, 문학관이나 문학비 건립, 작가의 생가 복원을 비롯한 문학문화재를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문화사업과 관련된 지역 안쪽의 잦은 시시비비다. 밀양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나라잃은시대 말기 황민가요를 작곡한 전력이 있는 박시춘의 생가 복원과 관련하여 흥역을 치르기도 했으나, 한국가요계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여 다행히 논란은 잦아들었다. 진주가 남인수 가요제 폐지와 생가 복원 계획의 철회로 가닥을 잡은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처럼 역사인물의 현양 사업은 지역적 정서와 함께 역사적 의미, 시대적 요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난제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그렇다면 ‘밀양성’(milyang identity), 즉 밀양의 지역가치 혹은 자기정체성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자질로 구성되어 있을까? 범박하게 말하자면 크게 네 갈래 길이 있다. 영남 사림과의 정신적 거점인 점필재 김종직의 도학(道學)사상, 사명당으로 표상되는 충의(忠義), 약산 김원봉으로 대표

30) 이순욱, 「광복기 밀양 지역문학과 『華岳』」, 『영주어문』 제18집, 영주어문학회, 2009. 214쪽.

되는 의열(義烈), 그리고 아랑의 정순(貞純)이 밀양의 역사성과 정신사를 관통하는 핵심고리다. 이즈음, 밀양에서는 사명당의 유적지와 밀양독립기념관 건립을 통해 충의와 의열의 지역 대표성을 드높이고자 했다. 이제는 지역민들이 일상 영역에서 이러한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우선, 사명당의 삶과 행적을 지역사회 안에서 견고하게 마련하는 일이 남아 있다. 근현대문학의 사명당 담론을 갈무리하여 『사명당사료집총람』이나 『근현대사명당문학사료집성』을 발간하여 후속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문 연구의 영역을 벗어나 사명당 담론을 대중화하는 문학적 실천이 잇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밀양’이라는 장소성을 내세워 발간한 『그래, 밀양의 옛이야기 한번 들어볼래?』는 바람직한 본보기다.<sup>31)</sup>

둘째, 지역사회에서 상징물을 재정비하는 일이다. 기존의 동상 외에 사명당을 표상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밀양의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에 ‘사명로’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의령의 경우, 의병항쟁과 관련된 특화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특정 장소에 의병항쟁의 숭고한 뜻을 새겨 넣었다. “의병로, 홍의로, 기강로, 보덕로, 충익로”가 그것이다. 그리고 백산상회를 설립하여 광복투쟁에 앞장섰던 백산 안희제와 월북 한글학자 고루 이극로, 경제인 호암 이병철의 뜻을 기려 “백산로, 고루로, 호암로”를 만들어 의령의 장소성을 드높였다. 가까운 김해 또한 “가야의 길”을 조성하여 김해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이제 밀양 지역도 ‘사명로’와 함께 ‘점필재로’, ‘약산로’, ‘아랑로’를 마련하여 도학, 충의, 의열, 정순의 네 길로 면면히 이어져온 밀양의 정신사를 드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31) 사명당 문헌선회와 구전선회 가운데서 2편을 가려 뽑아 누구나 읽기 쉽도록 손질을 하여 사명당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드높이고자 했다. 한태문·이용인·이순욱 글, 『그래! 밀양의 옛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세종문화사, 2010, 24-30쪽.

셋째, 사명당 현양 사업 못지않게 충의와 의열의 전통을 한데 묶어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화적 기획이 필요하다. 집중과 확산 전략이다. 북북면 사포리 뒷산에 방치되다시피 하여 행정기관의 관리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있는 박차정 열사의 묘소를 정비하고, 김원봉과 윤세주 열사의 생가를 시에서 수용·관리함으로써 충의와 의열의 상징성을 드높여야 한다.

사명당은 우리 시대에 어떤 존재이며, 그의 사상과 나라사랑의 길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나라잃은시대 대사의 이름을 빌어 세상을 향해 준엄하게 내려쳤던 「墮落하여 가는 現代 僧侶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넷날에는 조선불교에서 유명한 도승이 나서 문학도 힘쓰고 예술도 정치도 힘쓰고 인간과 천당과 지옥에서 아름다운 사업을 꾸준히 하였는데 지금 조선 중들은 술먹고 돈 알기에 모든 오욕에 탐심이 가득하여 악마져 외도가 되니 참으로 조선 불교도 그만 멸망하지는구나, 하기는 인간법이 쇠하고 성하는 것이지마는 이것이 오죽 사람의 힘과 근성에 있는 것이다. 조선불교가 이와 갖치 멸망하는 것은 중들의 야비한 것으로 더욱히 住持라는 사람이 모든 잘못을 함으로 이와 갖치 되는 것이다. 그러면 조선 중들이 그 죄악을 엇지나 면할 것인가. 최후로 부탁할 것은 인간에 나아가거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특히 불교 승려의게 아뭏도록 卑弱性을 버리고 마음을 가져서 舊業舊田을 잘 가지며 남의게 노예가 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sup>32)</sup>

이 글은 「地下國訪問記」라는 특집 아래 “**新生**하려는 苦悶일망정 가장

32) 四溟堂 任休靜, 「墮落하여 가는 現代 僧侶들에게」, 『별건곤』 1927년 3월호, 개벽사, 1927.3, 45-46쪽. 사명당뿐만 아니라 당대 조선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진단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을 호출하고 있다. 「現代朝鮮靑年에게 與하노라」(김옥균), 「우리가 본 現下言論界」(장지연 외), 「世宗大王씨읍서」(정 생), 「經濟困難에 울고 있는 同胞에게」(정약용), 「現代男女音樂家에게 與하노라」(박 연), 「所謂富所謂貧者諸君에게」(허생), 「現代의 娼妓娼婦에게 與하노라」(논개).

꿈이롭고 또 어스러운 中에 잇는 只今의 朝鮮을 우리의 先人은 엇더케 보고 잇슬가”를 지하를 방문하여 그들의 말을 듣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밀양 지역문학에서 사명당을 어떤 방식으로 호출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사명당을 지나치게 신격화하거나 구국의 영웅으로 표상하는 데서 나아가 끝없이 인간화하고 탈신격화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VI. 마무리

이 글은 근대문학사에서 사명당 담론의 위상과 성격을 살피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대계몽기 역사전기문학은 민족의 주체성을 고양하고 외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요청되었다. 서산대사전을 기술하는 과정의 부산물로 취급되고 있는 「休靜大師傳 附惟政 靈圭」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무관하지 않았다. 짧은 인물기사에 가까운 사명당 서사는 뒷날의 딱지본 대중소설의 ‘사명당전’과 ‘서산대사전’으로 발전하는 전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둘째, 딱지본 대중소설 덕흥서림본은 전반적으로 서산대사의 일대기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명당 서사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서산대사의 삶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장도빈본은 역사가의 저술답게 『임진록』에서 과도하게 표출되었던 설화성을 적극 배제함으로써 역사 기록을 참조하여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지배 상황에서 조선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자각과 역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반면, 후처의 전처 아들 살해와 그에 대한 복수가 중심적 서사를 이루고 있는 영화출판사본은 등장인물이나 사건 전개에서 설화성이 사뭇 두드러졌다.

전통적인 고소설 독자층을 상정하면서 대중의 통속적인 취향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영화출판사본은 여러 형태의 이본(異本)을 형성하는 데 원천 텍스트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록』 계열의 영화출판사본이 새로운 서사를 첨가하면서 개작을 가파르게 추구해 나가고, 이는 또다른 이본의 생산으로 이어져 딱지본 대중소설의 한 흐름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광복기의 교과서 제도에서 사명당은 나라를 구한 승병장이나 일본을 통렬하게 굴복시킨 정치외교의 영웅으로 수용되고 있는데도, 다른 영웅담론과는 달리 설화성이 두드러졌다. 문헌 기록에 충실한 다른 위인 전기와 다른 점이다.

넷째, 이즈음 밀양 지역문학에서 사명당 담론은 인물의 존재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일정한 장소 감각을 회복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공식적인 역사 감각에 매몰됨으로써 장소성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장소의 발견과 탐구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을 발견하고 바람직한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인 까닭에 오늘날 밀양 지역문학인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라 하겠다.

## 참고문헌

### 1. 일차자료

- 「休靜大師傳 附惟政 靈圭」, 『西北學會月報』 제1호, 1908.6.  
장도빈, 『西山大師와 四溟堂』, 덕흥서림, 1928 3판.  
이극노·정인승 엮음, 『중등국어』 2, 정음사, 1948.  
박노아, 「四溟堂」, 『戲曲叢書 朴路兒篇』, 정음사, 1950.  
강근형, 『壬辰倭亂 四溟堂傳』, 영화출판사, 1954.  
김태흡, 「四溟堂」 1~3회, 『鹿苑』, 녹원사, 1957.  
이종익, 『四溟大師』 상·하, 정토문화사, 1957.  
대조사 편집부 엮음, 『서산대사 사명당전』, 대조사, 1958.  
신태삼, 『四溟堂傳』, 세창서관, 1962.  
최인옥 『四溟堂傳』, 을유문화사, 1962.  
임청산 편저, 「西山大師와 四溟堂」, 『사명당(四溟堂)의 풍운기(風雲記)』,  
대한출판사, 1962.  
박중관 각본, 「四溟堂」, 동아영화공사, 1963.  
오 영, 『悲戀의 女人과 四溟堂』, 문교출판사, 1964.  
향민사 편집부, 『壬辰倭亂 四溟堂傳』, 향민사, 1978.

### 2. 이차자료

- 김기선, 「<사명당전>의 형성과정과 작자의식 연구」, 경성대 석사논문,  
2009, 1-57쪽.  
김달진 외 옮김, 『四溟大師集』, 동국역경원, 1970.  
김승찬, 「사명당 구비서사물의 연구」, 『인문논총』 제56집, 부산대 인문학  
연구소, 2000.12, 1-28쪽.  
김종열, 『巨僧 四溟堂』, 문창당, 1948.

- 김찬기,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전』, 소명출판, 2004.
- 김태환, 「저력(底力)의 담론-민족의 영웅화에 대한 비판」, 『문학과 사회』 2003년 겨울호(제64호), 문학과지성사, 2003.11, 1634-1650쪽.
- 아단문고 기획실, 『통속과 정념의 매혹, 옛날 이야기책을 만나다』, (재) 아단문고, 2007.
- 이순욱, 「광복기 밀양 지역문학과 『華岳』」, 『영주어문』 제18집, 영주어문학회, 2009. 197-233쪽.
- 이순욱, 「1950년대 밀양 지역문학과 매체 발간의 전통」, 『지역문학연구』 제8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3, 11-49쪽.
- 이승윤, 『근대 역사담론의 생산과 역사소설』, 소명출판, 2009.
- 이진경, 「근대 계몽기 『대한매일신보』에서 근대적 역사 개념의 탄생」, 『사회와 역사』 제74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109-140쪽.
- 이희승, 「소설과 얘기책」, 『朝鮮文學研究鈔』, 을유문화사, 1946, 98-102쪽.
- 토머스 칼라일·박상의 옮김, 『영웅숭배론』, 을유문화사, 1982.
- 한태문·이웅인·이순욱 엮음, 『밀양설화집』 1~3, 세종문화사, 2009.
- 한태문·이웅인·이순욱 글, 『그래! 밀양의 옛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세종문화사, 2010.

<Abstract>

## Modern Discourse on Samyeongdang and Regional Literature in Miryang

Lee, Soon-Wook • Lee, Sang-Won

Most of the studies on Samyeongdang, a Korean Buddhist monk, take a historical approach focusing on the journey to Japan. From literary perspective, the studies concentrated too much on the history of novels similar with Imjinrok or on folk tales. There are several reasons behind the underestimation of Samyeongdang recently. First, considering the tradition of biographies since the modern period of enlightenment, the discussion on Samyeong has been almost always secondary to the Story of Great Master Seosan, making it difficult to obtain its own identity. Second, it was prevalent at that time to admire military leaders such as General Eulji Mundeok and Admiral Lee, Sun-sin who devoted themselves to overcoming national crisis, and Samyeong fell short of these national heroes.

Third, movies about Admiral Lee, Sun-sin and the Imjin War became the mainstream of popular culture, while only one movie about Samyeongdang was produced in 1963. During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and the Korean War, therefore, the discourse on Samyeongdang was relegated to the status of Ttakjibon popular novel and had to be published in different printings. This is a far cry from the discourse on Admiral Lee, Sun-sin, which was produced, reproduced, distributed and consumed in various ways. The primary

objec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scourse on Samyeongdang in the history of modern literature.

Key Words : Samyeongdang, discourse on Samyeongdang, Great Master Seosan, historical biography, hero, discourse on heroes, Ttakjibon popular novel, 『Story of Samyeongdang』, Jang, Deokheung-Seorim's version, Sechang-Seokwan's version, Younghwa-Publisher's version, Dae-Jo's version, Miryang, regional literature in Miryang

■ 논문접수 : 2010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7월 26일

■ 게재확정 : 2010년 7월 31일